

특집

고급 조경의 필수 아이템

그라스 가든

한국의 전통 조경은 유럽이나 일본, 심지어 중국 조경과도 구분된다.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풍습과 자연을 품어 안는 경관연출이 우리의 전통 조경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을 어귀의 장자나무 아래만 들어선 작은 마당, 강가의 절벽위에 거슬러지 않게 지어진 정자, 그리고 조선시대 궁궐 안으로 들어와 앉은 낮은 산과 연못이 그 특성을 잘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전통조경을 고집하기에는 건물의 형태나 시대적 요구가 바뀌었다. 현대의 건물과 자재를 이용한 건축물에 알맞은 조성의 테마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식물적 소재를 다루는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식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소나무, 대나무, 자작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은 지극히 우리 소비자가 선호하는 나무이다. 그렇다면 조경을 지피식물의 경우는 어떠한가? 최근 몇 년사이 우리의 소비자들이 변하고 있다. 빠르게 고급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보는 우호적 식물군도 점차적인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예측하건대 그라스류가 그 대표적인 식물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그라스류를 조경에 이용하기 위한 적용 방법이 일반적인 지피식물과는 좀 구별된다는 것도 이 그라스 조경을 하나의 테마로 설정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보면 그라스를 주제로 한 책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다.



물론 이런 책들 속에 나오는 식물들 모두가 국내 존재하는 식물군들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그라스의 대부분의 느낌은 고급스럽다는 것이다. 전통의 정원이 되었던 현대적 침단 건축물이 되었던 간에 요란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 그라스가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히 고급스럽고 흥분되는 경관을 연출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역새 품의깃털식(좌), 수크령 자이언트 브라워(우)

그라스를 이용한 경관연출에 있어 문제점 혹은 특성이 있다 한다면 이들은 화려하지 않아 잘못 이용하면 그냥 잡초에 지나지 않는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라스를 이용한 조경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두고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늬역새는 대형의 그라스로 포인트식물로 제격이다.

우선 통일감을 줄 것. 그라스 10종을 가지고 테마를 적용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통일화 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새가 있는 군락은 뒤쪽으로 배치하고 또한 수크령이 있는 군락은 좀 더 앞으로 그리고 겨울에도 갈색이 여름에도 갈색인 갈사초의 경우는 그 앞줄을 따라서 두 줄로 혹은 서너 줄로 넣고 앞이 언제나 단풍이 있는 흙더미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게 군데군데 포기들 형성시켜 다채로운 색깔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물때는 그라스를 이용한 경관은 규모를 크게 형성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앙의 무늬역새와 테두리의 털수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라스화단

셋째로는 포인트를 반드시 적용하라는 것이다. 야는 무늬가 있거나, 상록이거나 아니면 대형식물들을 포인트로 적용함으로써 기본적인 안정감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겨울경관에 대한 예측으로 겨울에 더욱 아름다게 연출한다.

다섯째로는 군데군데 꽃이 피는 식물들 적용함으로써 통일감으로 단조로워 질 수 있는 경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도록 한다. 이제 그라스를 이용한 조경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식물적인 소재도 국내에서 다양하게 선을 보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품종 또한 선을 보일 예정이다. 한국 조경을 지피식물의 이해는 그라스류를 이해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질 정도로 그라스는 앞으로 계속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라스는 초화류와 혼성식재에도 매우 잘 어울린다.

외국의 조경관련 식물소재를 다루고 있는 서점에 들러



꽃양귀비는 이제는 조경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아직도 봄축제용으로 이를 능가할 만한 소재가 많지 않다. 하지만 처음에 꽃양귀비를 국내에 들여와 적용하는데 있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봄축제현장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는데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꽃양귀비가 우리나라의 조경현장에 안착된 과정과 주요 지역축제현장을 사진과 함께 돌아보고자 한다.

1. 꽃양귀비의 도입



잉글랜드양귀비를 중심으로 수레국화, 만개초, 끈끈이대나물 등이 혼합되어 있다.

양귀비는 법적으로 재배가 금지되어 있지만 모든 품종이 그런 것은 아니다. 마약성분인 물결을 함유하고 있는 파파베르 스타니페루, 세티게루 이라는 2종품종이 규제종으로 명시되어 있다. 양귀비는 세계적으로 약 100여 종이 분포되어 있고 이들은 화단용 외에 절화용, 분화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꽃'에서 우리법면 혼합종자에 잉글랜드양귀비를 혼합하여 조경용으로 판매한 것이 시작이었다. 초기에는 몇몇의 남품받은 거래처에서 주변의 신고로 애를 먹었으나 근거자료 등을 통한 적절한 해명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2004년 여름,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우리법면혼합종으로 시공된 양재천 일부 구간에 핀 양귀비를 보고 신고가 들어간 것이다.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다. 그 결과는 한달뒤 국가수에서 마약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성분의뢰결과를 통해서 해당 언론사의 정정보도로 마무리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운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그 당시만해도 일대 혼란을 치렀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오히려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인식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2. 봄축제 현장, 최고의 선택



수레국화를 중심으로 잉글랜드양귀비가 혼합되어 있다.

양귀비축제를 처음 시작한 것은 포천부식물원 양귀비 축제이다. 아마도 양귀비를 일반인들에게 즐길 수 있는 관상용꽃으로 확실히 인식시켜 주었던 행사가 아닌가 싶다. 잉글랜드양귀비, 아이슬란드양귀비, 캘리포니아양귀비 등 가을에 파종하여 이듬해 5월말부터 약 1달간 양귀비축제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양귀비였을까. 봄이면 대표적으로 유채를 이용한 축제를 생각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연상한다. 하지만 비할 바가 아니었다. 다시말하면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꽃양귀비는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것이다. 특히 파주 신하산 돌꽃이 축제에서의 꽃양귀비의 위력은 대단하였다. 도로변에 안절한 나지에 대면적의 양귀비 군락. 지나가던 대부분의 차들은 누가 뭐랄 것도 없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저절로 양귀비 꽃밭으로 발길을 향하며 탄성을 내질렀다. 이 외에도 함양 한들 나라 꽃축제, 영광 온누리 꽃축제, 용인 에메니티 관광농업단지 등이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꽃양귀비축제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곳에서 꽃양귀비를 이용한 축제가 일반화 되어지고 있다.

3. 가을에 파종하는 꽃양귀비

종자로 파종하는 양귀비는 2년생식물로 가을에 파종하여 이듬해 봄에 꽃을 피우고 생을 마감한다. 물론 다년초 양귀비도 있지만 대면적에 저렴한 비용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잉글랜드양귀비와 캘리포니아양귀비가 종자로 많이 이용된다. 물론 이른 봄 파종해도 꽃을 피우지만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을 넘어오면 개화기를 앞당길 수 있고 더욱 튼튼하게 자란다.

4. 혼합파종시 다양한 경관 연출 가능

넓은 면적에 파종할 때 단순히 꽃양귀비 한 종류를 파종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안개초, 수레국화, 끈끈이대나물 등 같은 시기에 개화하는 식물들과 혼합하여 파종하면 더욱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2종을 혼합해도 좋고 그 이상 4~5종을 혼합해도 무관하다. 단지 품목 간 혼합파종시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혼합하는 품목과 비율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한다.



드문드문 꽃이 양귀비가 떨어져 있다.

혼합파종시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혼합하는 품목과 비율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꽃양귀비정원



봄 축제용 추파용 혼합종자 시리즈

꽃양귀비로 대표되는 추파용 혼합종자는 수년간 쌓아온 우리씨드만의 경험, 노하우, 확신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성공적인 봄 축제를 약속합니다.

추파혼합A타입	추파혼합B타입	추파혼합C타입	추파혼합D타입
잉글랜드양귀비 레드+인개초 화이트+끈끈이대나물+캘리포니아양귀비 노랑	인개초 핑크+수레국화 핑크&화이트+잉글랜드양귀비 혼합+캘리포니아양귀비 노랑	캘리포니아양귀비 노랑+인개초 화이트+수레국화 블루+잉글랜드양귀비 레드	수레국화 블루&화이트+잉글랜드양귀비 레드+인개초 핑크+캘리포니아양귀비 노랑

파종 및 관리방법

- 추파용 종자는 11월까지 파종해준다.
- 파종 후 흙은 덮지 말고 부리 씨앗을 살짝 눌러준다.
- 이듬해 생육이 약해지면 복합비료를 뿌려준다.

구입문의

농업회사법인(주) 우리씨드

전화. 031-634-7990 010-3622-1945

장기개화의 대표종

가우라 시리즈

- 화색이 아름답고 최고의 장기개화형
-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한 가우라 품종

로알티



웨딩마치



핑크리본



베이비 퍼플



베이비 핑크



베이비 골드트리



드래곤

시원한 대형의 꽃무리

부처꽃 탑

- 일반 부처꽃보다 1.5~2배 정도 더 큰 꽃대
- 큰 무리를 이루면 더욱 효과적이다.

로알티



아름다운 고급형 그라스

하코네클로아

- 그늘지역을 아주 밝게 해준다.
- 하천이나 연못가에 심으면 늘어져 흔들리는 모습이 일품이다.



아름다운 불형의 붓꽃

꽃파(차이브)

- 아름다운 꽃을 간직한 항기식물
- 여름, 가을식물과 혼성식재가 가능한 식물이다.



봄 라벤더를 연상시키는

숙근사루비아

- 키가 작은 봄 대표식물
- 잎에 향기가 있고 고급스럽다.



화색이 아름다운 장기개화형

톱풀 파스텔

- 고급 화색, 고급 느낌
- 정원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다.



국내에서 개발한
장기개화형 정원식물

코레우리

-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꽃'이 가장 많은 품종을 개발한 품종군
- 화색, 초장, 꽃의 크기,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여 기호에 맞게 선택가능

로알티



우리드림



골드힐



화이트마크



골드볼



미니스타



마리



하디골드

분홍의 화려한 꽃방석

분홍구절초

- 가을 연출의 대표적 수종
- 키가 일품적이고 부드러운 화색의 구절초



다양한 화색의 가을연출

아스타

- 다양한 품종의 다양한 화색
- 생육이 빠르고 다화성의 꽃은 매우 아름답다.



고급스러운 포인트 식물

실유카 브라이트에찌

- 잎의 질감이 좋은 상록성
- 정원의 포인트식물, 돌메지용으로 좋다.



아름다운 가을햇살에 어울리는

파니쿰

- 아름다운 초형과 이삭
- 무리를 지어 식재하면 더욱 좋다.



다년생 해바라기

숙근해바라기

- 여름부터 가을까지 노란물결
- 큰 군락 식재에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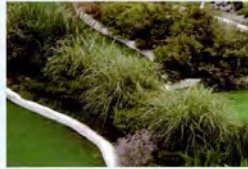
그라스 정원의 대표군 억새

- 단독, 군식, 혼식, 혼성 어디에도 좋은 소재
- 다양한 품종으로 이들의 정원화가 가능하다.



억새 그린라이트

억새 호피



무늬억새

억새 라들레브라

억새 모닝라이트

억새 파랑새

어떤 식물과도 조화로운 소재 개량원추리

- 화색이 매우 다양하고 꽃이 화려하다.
- 대면적 식재를 비롯, 어떤 현장에도 잘 어울린다.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엔 상록 상록잔디패랭이

- 우리꽃 연구소의 품종보호를 받는 패랭이
- 상록잔디패랭이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극건조에 가장 강한 기린초 금강애기기린초

- 조밀하고 뛰어난 지피력
- 옥상, 건조지에 안성맞춤의 소재이다.



키 작은 겹꽃금계국 금계국 골든글로브

- 겹꽃이 아름다운 신품종 금계국
- 키가 작고 꽃이 아름다워 정원용으로 좋은 소재이다.



화려함의 결정판 메카나매발톱

- 볼의 화신, 화려함의 최상
- 가을식재해야 봄에 풍성한 꽃을 볼 수 있다.



이색적인 꽃잔치 니포피아

- 이색적인 꽃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 주목
- 정원의 포인트 식물로 적용하면 일품이다.



니포피아

니포피아

니포피아

니포피아



다화성의 키작은 용담 하늘용담

- 잎의 모양, 식물품, 화색, 화형이 모두 좋은 용담
- 늦가을까지 보석같은 꽃을 피운다.



햇살에 눈부신 아름다움 털수염풀

- 햇살, 바람과 함께 최상의 조화를 이루는 그라스
- 잎의 부드러움과 고급스러움에 있어 단연 돋보이는 식물



봄이 왔 습 니 다 !!

가을에 심는 봄꽃!

튤립, 수선, 무스카리, 알리움기린티움

아름다운 튤립, 수선, 무스카리, 알리움 등 이 모든 봄꽃은 가을에 심어야 합니다. 가을에 심는 구근 식물은 기존의 야생화 화단, 꽃잔디 화단, 잔디밭 등 어떤 작물이 있어도 심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우량의 구근(요충)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튤립 네그리타



튤립 리버티마크



튤립 키스네리스



튤립 화이트



무스카리



수선화



알리움기린티움

구입문의 농업회사법인(주) 우리씨드

전화. 031-634-7990 010-3622-1945



대표적 정원식물군 ④

암석식물 Rock plants

암석식물은 넓은 범위의 내한성 식물로 산악지대에서 자생하던 식물들을 대표한다. 대부분 암석 식물은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서 생육이 알맞다. 단순한 모양으로 자연스런 매력을 가진다. 보통 예쁘고 알중있으며 깨끗한 색상으로 물성한 꽃을 피운다. 좁은 틈에서부터 화분, 넓은 암석정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정원에 잘 어울린다.



암석식물이란?

구근을 포함하여 매트나 쿠션모양을 형성하는 다년생 속근초를 말하나 왜성으로 자라는 수목과 관목도 포함한다. 고산성 식물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암석정원 식재에 알맞은 작은 크기의 식물일 수도 있다. 많은 고산성 식물들은 특화된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적당한 시면의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서 잘 자라는 종, 품종들을 말한다.

생장특성

고산성 식물들은 수목 한계선 위 쪽에서 바위투성이 사면이나 바위의 균열 틈 등에서 자란다. 대부분 생장 습성상 뿌리를 깊게 내리며 뻗게 밀도 높게 자란다. 작은 잎은 가죽질이며 광택이 나거나 얇은 털들로 덮여 있다. 이러한 적응 방식으로 고산성 식물들은 매우 건조하고 강풍이 불며 뜨겁고 강한 태양이 내리쬐며 온도가

가 극대화된 지역에서 살아남는다. 또한 빠르게 배수가 되는 거친 토양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지속적으로 습한 환경이나 고도가 낮은 정원에서는 겨울 추위에 약하며 습한 여름을 싫어한다.



조경적용

암석식물들은 상록성인 경우가 많아 연중 정원을 즐길 수가 있다. 작은 관목으로 그 틈을 잡고 그 공간 안에 숨이 달리고 반짝거리며 뻗게 바닥에 깔린 작은 식물들을 식재하면 꽃이 만개한 것만큼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암석식물은 상대적으로 개화기가 짧은 편이지만 작은 깨끗한 색상의 꽃들이 풍성하게 피어난다. 가을이나 초봄에 꽃이 피는 구근을 이용한다면 정원의 개화기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일년내내 볼거리를 유지하기

상록성인 식물과 구조적인 식재가 락가든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고산성 식물들은 봄과 이른 여름 사이에 대부분 개화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른 봄에 피는 구근류나 무늬야채, 역새 그린라이트, 에버골드 등 그라스류와 연속 개화하는 노랑속근코스모스, 상록잔디패랭이, 스텔라원주리 등 품종을 적용하면 보다 감상할 수 있는 계절을 확대할 수 있다.

토양

토양과 돌의 선택은 암석 식물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암석은 그늘과 미네랄을 제공하고 배수를 개선시켜주며 뿌리생장을 보호해 준다. 이러한 암석

은 보통 토양 아래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의 경우 이러한 암석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모래와 자갈 토양으로 배수가 너무 빠른 경우 스펀지처럼 물을 잡아두는 피트모스와 같은 토양개량제를 첨가한다. 토양의 배수를 개선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나무 껍질과 같은 유기물질을 첨가하는 것이다. 이는 스펀지와 같은 역할 뿐 아니라 진흙 또는 진흙질 양토와 같이 무거운 토양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

주요 암석식물



가든인 추천 구근식물 ④

화려한 구근식물 크로코스미아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크로코스미아(*Crocsmia masoniorum*)는 구근의 형태로 자라는 식물이며 개화 습성은 글라디올러스와 비슷하다. 일부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의 섬과 제주도에도 많이 퍼져있는 식물로 꽃이 아름답고 증식이 매우 빠른 식물이다.

이 식물은 국내 순수종이 아닌 외래종으로 남아프리카 원산의 다년초이다. 주로 물가에서 생육이 왕성하지만 일반 나지 혹은 약간의 건조지에서도 생육이 강해 아름다운 꽃만 아니라면 아주 물을 참조로 인식되어 질 정도로 번식과 생육이 왕성하다. 이른 봄꽃과 흡사하지만 더욱 힘 있고 경감한 맛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예기범부 채로 부르기도 한다. 꽃의 색상은 노랑과 주황 그리고 빨강으로 대표된다.

이른 봄에 꽃피는 식물 등과 혼합식재가 유리하고 특히 금낭화, 동양나물, 추식구근 등 이른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생육이 급격히 떨어지는 종류와 함께 식재하면 좋다. 꽃은 보통 6월에서 7월까지 피는데 그 이후에도 잎이 아름다워 매우 관심이 가는 품목이다. 이 식물은 반드시 경계웁스를 쳐 주는 것이 다른 식물의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넓은 면적에 가득심어 놓으면 아마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장관이 연출될 것이며 물빛과 혹은 초록과 이루러진 모습은 정말 절정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이다. 관리가 매우 쉬운 반면 혼합식재를 하기 나 기타 식물과 경계를 두고 식재할 경우에는 차라리 화분 혹은 항아리 등에 넣어서 그 용기째 땅에 묻어 식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내한성이 약해 중부 지방에서는 겨울에 캐서 보관하거나 보온작업을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

구근이긴 하나 땅속 뿌리줄기를 기웃이 하여 번식하므로 번식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리고 꽃이 밑에서부터 위로 피어오르며 잎과 꽃대가 튼튼하여 절화용으로도 전망이 밝은 종류이다. 🌱



그라스의 이해 - ④

잎이 아름답고 피복력이 뛰어난

무늬대사초



일반적으로 대사초는 한국, 일본, 중국의 산지 나무아래에서 주로 서식한다. 포복형으로 매우 조밀하게 자라며 반그늘이나 습기가 많거나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무늬중인 흰줄무늬대사초는 소형의 그라스류로 현재 국내에서 많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품종 중 하나이다. 잎 가장자리에 흰줄무늬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포복형으로 매우 조밀하게 자란다. 겨울에 나엽이 지고 약간 서늘한 이른 봄 신초가 올라올 때 잎이 분홍빛을 띠기도 한다. 반그늘이나 건습지를 가리지 않고 자란다. 잎이

아름답고 피복력이 뛰어나 나무아래 피복하거나 음지쪽의 라인식물로 이용하면 좋다. 또는 다른 음지식물과 어울려 포인트 식물로 활용해도 좋다. 무늬가 좋아 음지쪽의 화단에 단독 식재해 놓거나 아니면 다른 무늬대사초류와 번갈아 식재해 놓으면 주위를 매우 밝게 해준다. 경사지나 소나무 아래에도 식재가 가능하며 암석가든의 돌틈에 포인트로 식재해 주어도 좋다. 번식은 봄에 포기들 분주하거나 삽목을 하면 되는데 번식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대량생산이 비교적 쉽다. 관리

면에서도 별로 까다롭지 않으며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므로 퇴비를 많이 주면 더욱더 잘 자란다. 햇빛에는 약하여 양지쪽에 식재하게 되면 잎 끝이 타버려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늘 쪽에 식재해 주어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무늬대사초류는 그 형태와 무늬에 따라 몇 가지 품종이 존재한다. 흰줄무늬대사초와 유사하며 잎 가장자리에 노란줄무늬가 있는 노란줄무늬대사초, 잎이 길고 가늘며 잎 안쪽에 노란줄무늬가 있는 대사초 골든라이트가 있고 '우리꽃'에서 개발한 잎 전체가 노란색을 띠는 대사초 골든립이 앞으로 주목할 소재로 선보일 예정이다. 🌱





생터근린공원

“옹벽에 식물을 심어 도시를 숲으로 만들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조달청 식별번호 : 23055519

벽화수 에코블럭은 새로운 특허 제품입니다.



승상산입구

OK!
산림에도,
도로에도,
공원에도,
하천에도,
담장에도



벽화수 에코블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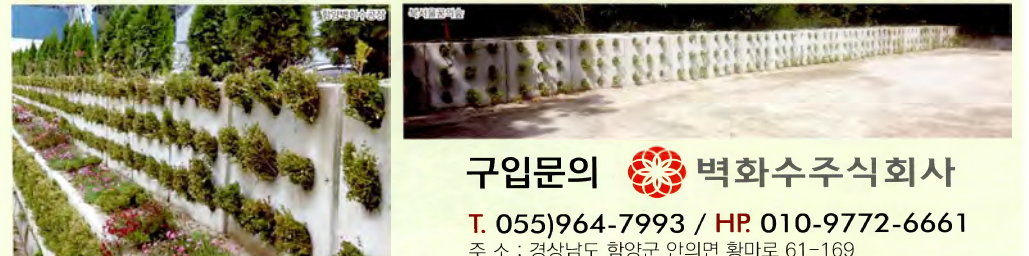
벽화수 에코블럭

“한번 써 보면 **고객**이 됩니다”

지난 3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제 **벽화수 에코블럭**은 도시 속 숲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곳에서 사랑 받고 있습니다.

- 주요실적 -

- | | |
|-----------------------|--------------------------|
| • 2015. 08 강동역 센터 | • 2017. 04 산림조합 전남본부(극성) |
| • 2015. 10 산청산림문화박물관 | • 2017. 05 생터근린공원 |
| • 2015. 10 북서울꿈의숲 | • 2017. 05 남부순환로 |
| • 2016. 05 승상산 입구 | • 2017. 06 별말근린공원 |
| • 2016. 10 예산산림문화박물관 | • 2017. 06 함양 안의면사무소 |
| • 2016. 11 봉화산 용기테마공원 | • 2017. 07 송파 중대초등학교 |
| • 2016. 12 고덕천 생태하천 | • 2017. 08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2017. 03 전주 한옥레일바이크 | |



구입문의  벽화수주식회사

T. 055)964-7993 / HP. 010-9772-6661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황마로 61-169

혼합식재 정원

정원을 구성하기 위한 소재로는 일년초, 다년초, 관목, 교목 등 식물이 필요하고 그 외 의자석 및 구조물 등이 뒤따라 올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할 것인가란 숙제가 앞에 놓여 있다. 이번호에는 다양한 혼합식재 국내의 현황을 소개하고 식재방법과 이용된 소재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1. 순백의 깨끗함으로 물들이다.

하얀색 꽃을 피우기가 어렵지만 색깔을 띠는 식물도 흔함. 함박꽃잎 화이트란젠다. 키 큰 무리에서 꽃 포인트로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속 키 무리에서 화이트, 사피노라, 코튼이 만개되어 있다. 꽃색깔 노보라가 금새리도 활짝 필 기세로 꽃봉오리를 머금고 있다. 옆 라인에서도 잎의 색깔이 좋은 무리. 옆주리에서가 적시되어져 있고 한테발레. 붉은 이리 꽃을 피우고 앞연히 꽃대를 짚고 있다. 전체적으로 정감한 느낌을 주며 여기에 분홍색 꽃을 가진 소재를 같이 어울려 심어도 좋은 조합을 이룰 수 있다.



3. 골프가 즐거운 또다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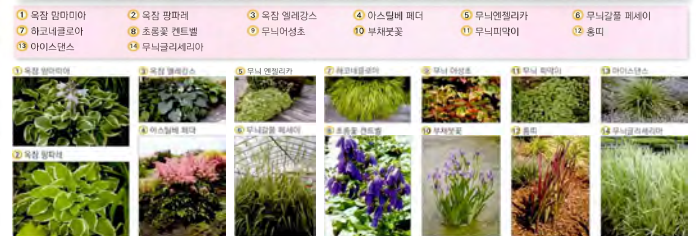
골프장 코스나 티와 인접한 곳에 조성 한 한대(한)로 채례를 기다리면서 꽃을 감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길게 라인을 형성 하며 연출한 정원으로 앞으로는 피리폴 리를루프가 길게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피리폴로 피리폴 이브가 연결되어져 아 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다. 피리폴 리를루 루 다음라인으로 노랑속근코스모스가 노 랍물결을 이루고 있으며 다음라인의 위 스타가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 한차례 위 로 뻗고 있다. 배경이 되고 있는 암석절개 지 앞으로 바가 큰 불독레아와 무늬연새 가 뒤를 받쳐주고 있다. 각각의 꽃들이 시 위한 느낌으로 펼쳐지고 있다.



4. 아름다운 색감을 지닌 소연못정원

조각박사의 행사가자 연휴한 소연못정경이다. 대삼자에 초탄을 이용하여 구름을 만들고 고무로 된 핀드라아니하를 잡고 작은 연꽃을 만들었다. 연꽃안으로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물과 잘 어울리는 퍼티(황토색의 모래)와 호박 부채를 마감을 하고 꽃에서 식물들을 배치하였다. 먼저 식물들의 배치를 보면 호숫가에 일정한구역을 연꽃을 잡았고 아래에 전체적인 풍경을 주고 있다. 그리고 무늬잡고, 부채꽃, 대환꽃모 위쪽 스바와를 쳐서주고 있는 식물들을 준비하게 했음은 물론 외부와의 경계를 주어 훨씬 아늑하게 연출을 했다. 물 주변으로는 아스드나무 붉은 계열의 꽃으로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잎의 길이가 높은 아스드나무, 하크네스모양, 톱니 등 키가 작지 않은 식물들은 물 주변과 외곽쪽에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그리고 무늬파마, 무늬엔젤리, 황금리시마치아 등 잎의 색깔이 좋은 식물들이 요소요소로 자리를 잡았다.

물속에서 생장이 가능한 무늬글리세리나, 무늬아성조가 물 가장자리 얇은 물속에서 살아가는 수인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 안쪽에서 가장저에서 기르기 쉬운 미나수련이 될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뒤쪽의 초롱꽃은 미나수련은 초록색의 배경에 보석을 뿌린 듯 반짝인다. 그 외 무늬종을 중심으로 빈리리를 채워 넣어주면서 전경만으로 물과 식물들이 잘 어울리지는 고급스러운 연못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전경에서도 3여종의 식물을 사면서 수인에서 신나게 보이지 않고 통일감을 주고 있다. 하나하나 품종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잘 살펴내야 하고 적절한 무늬와 질감을 가진 재료의 조합으로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5. 꿈속을 걷는 이 기분

복사물품의 숲 육상에 조성된 혼합식재 정원이다. 아름다운 색감을 자랑하는 다양한 식물들은 꾸밈진 정원으로 방문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그라스와 수국과도 잘 어울리는 정원으로 그리스인 무늬까지 정원 전체적으로 포인트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주조제로 후프스, 예키나, 코레우리가 한창 아담담게 꽃을 피우고 있다. 그 사이사이에도 벚꽃, 금국과 예식상, 가사리 등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리아트리스, 시스타 등 또다른 많은 정원식물들이 뒤를 이어 정원을 수놓는 것이다.

6. 낮잠이 그리운 노랑정원의 산책

노란색으로 물들은 칼라정원이다. 중앙에 커가 큰 마티리아와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풀꽃 골드가 우뚝 서있어 중심을 잡는다. 양 옆으로는 한쪽이 엷은 색이 들어오는 황금 장려가 열식되어 있고 한쪽으로는 노랑속근 코스모스, 큐레이터 허더골드, 오렌지속근 코스모스, 스텔라워너 등 여러 조수를 차지 하고 있다. 노란색으로 아름답게 수를 놓고 있다. 포인트로 중간중간 솟아나오는 노란색 꽃배이 다른 꽃사이에서 탐스럽게 피어 오백이 다. 노랑정원으로 산책, 생각만해도 즐겁지 않겠다.





이번에 소개할 붓들레야(Buddleja davidii)는 마전과의 식물로 유럽의 정원에서는 조경용소재로 널리 이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들어온지는 오래 되었으나 아직 많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않고 있고 그 품종도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붓들레야는 꽃의 생김새나 진한 향기가 비슷하고 여름에 꽃이 한창이라는 점에서 '썸머라일락'이라 부르기도 한다. 개화기간이 6-9월로 관목성 화목류로는 최장기 개

화한다. 꽃이 질때쯤 꽃이 피는 가지를 제거해주면 더 많은 꽃을 계속 만날 수 있다. 대부분의 관목성 화목류가 봄철 개화가 집중되어 있어 여름 이후로 꽃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붓들레야의 장점은 무엇보다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장기간 개화 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품종이 내한성이 강해 우리나라 전지역에 적응이 가능하며 꽃이 많아 나비가 많이 모이는 꽃으로도 유명하다. 키는 일반적으로 2-3m정도 자라며 근대 들어서는 약 1.5m정도 자라는 왜성종도 선보이고 있다. 품종에 따라 보라색, 허양색, 분홍색 등 화색이 다양하다. 꼬리처럼 길게 피는 꽃은 이색적이며 요즘의 건축정원 형태에 매우 좋은 관목이다.



이용성면에서 철쭉이나 생굴타리용 관목의 뒤쪽에 적용하거나 시면 혹은 펜스나 벽면 앞쪽 등 건물차폐용으로 사용해도 좋다. 또한 대형의 포기는 일반 야생화나 그라스 정원에 포인트식물로 활용가지가 높다.

작은 정원에 나무 한그루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붓들레

야가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성면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현재 각 지자체나 식물원 등에서 품종 관목원으로서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장미원을 조성한다. 새로운 볼거리는 디자인이라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소재의 발굴도 중요하다. 이제 관목원도 다양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붓들레야는 그 품종이 다양하고 꽃이 아름답고 장기간개화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목원조성에서 제일 유망한 품종군이라고 볼 수 있다. 문배점 좋은 비옥한 토양에서 꽃이 많고 색이 좋아지며 알카리성 토양에 강하며 산성토양에서는 석회를 추가하면 된다. 이른 봄 묵은 가지를 잘라 새로운 튼튼한 가지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빨리 자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퇴비에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다. 꽃이 진 꽃대를 잘라주면 다시 측지에서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복합비료 또는 유박비료를 컷팅후 살포하면 더욱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블루에서 화이트까지 다양한 화색의 품종을 이용하여 현장에 맞게 적용한다면 이국적이면서 강건하여 여러 조경현장에 아름다운 경관연출이 기대되는 관목이다. 🌸



붓들레야는 그 품종이 다양하고 꽃이 아름답고 장기간개화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목원조성에서 제일 유망한 품종군

그라스

특징

- ① 그라스는 다른 가든 식물보다 토양을 상대적으로 가리지 않는다.
- ② 지피식물, 침식 방지, 그리고 수직적인 디자인 요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 ③ 병레와 질병이 거의 없다.
- ④ 봄 줄기 자르기를 제외하고 관리가 용이하다.
- ⑤ 말린 그라스는 실내외의 장식용으로도 좋은 소재이다.
- ⑥ 한 계절 이상 경관에 흥미를 준다.
- ⑦ 그라스의 종자와 잎은 가을과 겨울의 감성 포인트를 더한다.
- ⑧ 잎 색깔의 범위는 녹색에서 청색, 노란색, 청동색 그리고 붉은색까지 다양한 범위의 색을 발현한다.
- ⑨ 김의털처럼 얇고 고운 철갑부터 큰 역새의 거친 느낌까지 다양한 질감을 준다.
- ⑩ 바람에 흔들리는 움직임이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효과가 있다.



구분	품명	규격	식별번호	단개원	과명	화색	화기	초장	빛
1	대사초 골드라이트	8cm포트	22206700	1,950	사초과	무늬종		10	반음지/음지
2	현충무늬대사초	8cm포트	22206675	1,120	사초과	무늬종		10	반음지/음지
3	몰라니아하이드	8cm포트	22467960	2,400	화본과	관엽형	8-10월	60-70	양지
4	몰라니아무어	8cm포트	22206706	2,400	화본과	관엽형	8-10월	20-30	양지
5	무늬갈뿔매세이	8cm포트	22206707	2,920	화본과	무늬종	5-6월	150-170	양지
6	무늬글리세리아	8cm포트	22206708	1,950	화본과	무늬종		50-70	양지
7	무늬새	8cm포트	22216134	2,680	화본과	무늬종	5-6월	60-70	양지/반음지
8	무늬영주그라스	8cm포트	22206712	1,640	화본과	무늬종		15-20	양지/반음지
9	꽃기장물	8cm포트	22467962	2,320	화본과	관엽형	9-11월	70-80	양지
10	아이스댄스	10cm포트	22467966	3,370	사초과	무늬종		30-50	양지/반음지/음지
11	플릭카	8cm포트	22467963	2,400	사초과	관엽형		20-25	양지
12	회룡물사초	8cm포트	22663024	2,020	사초과	관엽형	5-6월	50-70	양지
13	새들루마운틴	8cm포트	22206726	2,250	화본과	관엽형	9-11월	70-80	양지/반음지
14	수크령	8cm포트	22424983	300	화본과	이삭형	9-11월	60-70	양지
15	무늬연세	10.2cm포트	22206709	3,900	화본과	무늬종	9-11월	170-200	양지
16	역새 그린라이트	10.2cm포트	22206742	3,450	화본과	이삭형	9-11월	170-200	양지
17	역새 리틀제브라	10cm포트	22659395	3,520	화본과	무늬종	9-11월	170-200	양지
18	역새 모닝라이트	10.2cm포트	22206743	3,450	화본과	무늬종	9-11월	170-200	양지
19	역새 라일라세	10.2cm포트	22206744	4,870	화본과	이삭형	9-11월	70-80	양지
20	역새 호미	10.2cm포트	22206746	2,600	화본과	무늬종	9-11월	170-200	양지
21	에버그드	10.2cm포트	22206747	3,450	사초과	무늬종		30-50	양지/반음지/음지
22	왜성수크령	8cm포트	22659900	1,420	화본과	이삭형	8-10월	40-50	양지
23	좁새물	8cm포트	22206762	1,340	화본과	관엽형		15-20	양지
24	털수염물	8cm포트	22206769	1,300	화본과	이삭형	5-6월	30-50	양지/반음지
25	몽지초(하코네글로리아)	10cm포트	22467961	3,370	화본과	무늬종		30-50	양지/반음지
26	출뿔	8cm포트	22206775	970	화본과	관엽형		20-30	양지





가든조아
GardenJoa

프리미엄 쇼핑몰 가든조아 ‘10月 꽃 피우다.’